***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11. 6.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사진1 : 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BIXPO) 2024’에서 구본규 LS전선 대표(가운데)와 에퀴노르(equinor)社의 토르게 나켄(Torgeir Nakken) 총괄 디렉터(오른쪽)와 엠브렛 욘스가드(Embret Johnsgaard) 구매 디렉터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2, 3 : 6일 ‘빅스포(BIXPO) 2024’에서 방문객들이 LS전선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에퀴노르와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 MOU 체결**  **■ 반딧불이 사업에 케이블 공급 시 국내 첫 상용화 사례 기대**  **■ 정부의 부유식 해상풍력 지원 정책과 함께 국내외 시장 선도**  **■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와 해저 사업 밸류체인 강화**  LS전선(대표 구본규)은 6일 노르웨이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社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인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에퀴노르가 울산 연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750MW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터빈을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여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국제 인증까지 취득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다이내믹 케이블은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견디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전달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만이 개발에 성공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와 함께 해저 사업의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르게 나켄(Torgeir Nakken) 에퀴노르 총괄 디렉터는 “LS전선과 함께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2026년까지 총 2.5~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밝히며, 지난 10월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약 500MW의 물량을 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 체결식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BIXPO) 2024’에서 진행되었으며, LS전선은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케이블 외에도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센터(IDC)용 초전도 케이블 솔루션을 함께 선보였다. | |